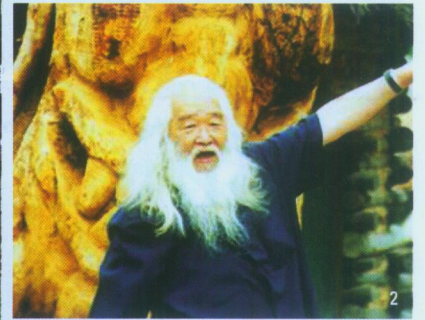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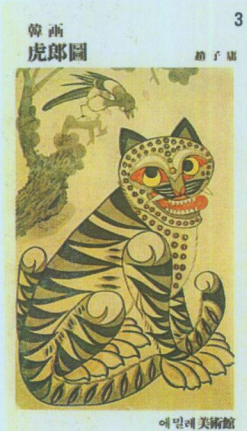
치우천황을 발굴해 낸 민속학계의 거인 고 조자용 박사



1 속리산 에밀레 미술관 내 한 전시물. 2 기인의 풍모를 가졌던 고 조자용 박사의 강의 모습. 3 조자용 박사 저자의 한화 호랑도

그는 우선 외모에서부터 기인의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180cm가 넘는 우람한 체격에 백발과 긴 수염을 기른 그가 그 큰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으로 민속 예술에 대한 강연을 할 때는 모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평생에 걸쳐 민속을 연구하고 사재를 털어 속리산내에 박물관을 세우는 등 한국민속 예술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으면서도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고 '조자용' 박사다. 10주기를 맞는 올해 뉴욕의 코리아 아트 소사이어티(회장 로버트 킬리)가 뉴욕에서 조자용 박사 알리기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1,200명이 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 저널에 66페이지에 달하는 소개글을 싣고, 1월 30일 속리산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도 참가한다.

뉴욕에서 한국 고미술을 가장 넓게 거래하고 있는 아트 딜러이기도 한 로버트 킬리 회장은 "한국 민속 예술을 공부할 때마다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새삼 발견한다. 신기한 건 내 주위의 한국인 대부분 그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라고 아쉬워했다. 그의 활동과 남긴 저서를 모두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한정된 관계로 "어떻게 이런 인물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라고 생각할 만한 사항만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영정 사진만 보면 영락없이 도담은 사람 분위기지만 조자용 박사는 허버드대(구조공학)을 나온 엘리트 건축가다. 해방 후 한국 건축학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는 우리에게 친숙하기 그지없는 호랑이(사진 3)



에밀레 미술관

를 비롯한 민화를 대중에게 적극 알린 장본인이다. 그는 73년 '한화 호랑도'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속리산내에 에밀레 미술관을 열어서 '한국 민중그림(민화)'을 전시했다. 지금은 현책방에서만 만날 수 있다. 조자용 박사는 민화뿐 아니라 민예품과 한국의 토박이 도깨비 문양을 캐내서 전시회를 하고 알리는 데에도 애를 썼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 붉은 악마가 흔들던 깃발에 새겨진, 그 유명한 치우천황 문양도 조자용 박사가 모아서 세상에 다시 알린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그를 '도깨비 박사'라고 부르며 "2년만 더 사셨어도 당신이 온 삶을 바쳐 해온 일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문화로 거듭 태어난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그와 가까웠던 김기자(테레사 김)박사는 조자용 박사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는 절대 건조한 학자풍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에 대해 말할 때는 옆 사람을 전염시키는 열정으로, 단지 글쓰고 책 읽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예술 안에서 숨쉬고,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 좁고 자신이 아는 것만을 내세우는 엘리트 학자와 관료들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는 엘리트 문화에 비해 천대받던 무속과 민속의 숨겨진 가치를 알아봤다. 이를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열린 예술관이 담긴 에밀레 미술관을 사재를 털어 만들었다. 이 공간이 "체대로 관리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한 방문자는 안타까워했다. 대한민국에서 늘 접하는 풍경이다.

그에 대한 특집 자료와 사진을 원하는 독자는 robert@koreanartsociety.org 로 요청하면 된다.